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7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2월 16일 (제729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깨달음이 축복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 노인이 함께 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재물, 성공, 그리고 사랑의 신입니다. 왕께서 우리 셋 중 하나만을 택하여 왕 곁에 두신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재물을 택했다. 그러자 성공과 사랑의 신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왕이 놀라서 “두 분은 왜 가려고 하나?”고 하니, 그들은 “재물로는 성공과 사랑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재물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일어났다.

다시 세 노인은 이웃나라 왕을 찾아가서 동일하게 물었다. 그러자 이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성공을 택했다. 그러자 재물과 사랑의 신이 벌떡 일어나며, “성공으로는 재물과 사랑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진정한 성공을 모르시는 듯 합니다.”라고 했다.

세 노인은 다시 조금 먼 곳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왕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런데 이 왕은 대답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성공이나 재물의 신을 택하지 않겠소. 나는 사랑의 신을 택하겠소.” 그러자 성공과 재물의 신이 “우리도 이 나라에 함께 살겠소.”라고 대답했다. 왕이 의아하게 생각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성공도 있고, 재물도 있는 겁니다.”

나는 성도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다. 그렇다. 모두 성공과 재물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모르는 것이 있다. 사랑이 없는 성공은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재물은 일반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성공과 무너지지 않는 재물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고전13:13).

원칙을 세워야 넘어지지 않는다

청년기는 완성이 아니다. 미완성의 단계다. 그래서 천한 욕망에 넘어질 수 있고, 물밑듯이 밀려드는 유혹에 휩쓸릴 수 있다. 또한 오판으로 큰일을 망칠 수 있고, 실수하여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지난 2월 5일에 있었던 JC아카데미 개강예배에서 감사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청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영·혼·육의 지침서를 선포하셨다.

“원칙대로 살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가 어찌 되든 넘어지지 않는다.

신앙의 원칙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1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가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자신할 게 아니다. 일천 번제를 드릴 만큼 믿음이 깊었던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보라.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처음부터 복 있는 자, 곧 믿는 자와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서, 처세술 중 하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농촌으로 귀향하여 열심히 땅을 가꾼 어느 청년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배필을 찾던 중, 한 여인과 편지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편지가 오가고 서로에게 애정이 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복해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한다. 명함에 속으면 안 된다. 명함만 보고 혹해서 신세 망치는 사람을 많이 봤다. 결혼도, 동업도 학벌이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바른 사고를 가졌는지를 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헬기를 내면 안 된다. 공든 탑도 순간 무너진다. 헬기내면 그동안 쌓은 신뢰, 업적 다 순간 무너진다. 그래서 성경에 ‘헬기 내는 자는 일제로 망한다’(욥34:15)고 한 것이다.

최초의 살인도 헬기로 인해서였다. 사울의 죽음도 결국 분노로 인한 것이다. 설날에도 할머니에게 세배 안 간다는 아들



2014 JC 아카데미 개강예배(2014. 2. 5 엘루체 웨딩 컨벤션홀)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십계명에 이의가 없고, 또한 잘 지키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안 믿는 자와 동업을 할 때 발생한 다. 나는 교회에 가야 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못가겠다 하고, 심지어 다른 우상에게 절하자고 하면 어찌하겠는가? 그 때 갈라져야 한다. 어떻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와 손을 잡지 말라는 거다. 왜냐?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필이나 사회 동료, 직장을 선택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무렵, 청년은 여인에게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남을 차일피일 미뤘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실인즉 자신은 한 쪽 다리를 절고, 또 얼굴에도 큰 상처가 있다고 고백했다. 여인의 편지에 청년은 고민했지만, 그동안 편지로 마음을 확인한 상태라 용기 내어 만나자고 했다. 여인은 지팡이를 짚고 얼굴은 붕대로 싸맨 채 나타났다. 청년은 그 여인과 그 날 처음 데이트를 했고, 헤어질 무렵 청혼을 했다. 외모가 무슨 상관있느냐, 마음이 제일이라며.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얼굴의 붕대를 풀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절세미인이 아닌가? 지팡이도 내던졌다. 사연을 들어보니 여인은 재력가의 딸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돈에만 관심을 두니 진실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이런 거짓말을

에게 분노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않았는가? 마귀는 우리 곁에 잠복하고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려고,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는데 넘어뜨려 물을 다 쏟게 한다. 그러므로 헬기 내지 말고, 헬기 내는 자와 동행도 하지 마라. 또한 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요즘 젊은이들은 방향하고 있다. 올바른 삶의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분명히 이를 수 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의 젊은이는 오늘의 지침서를 발판으로 방향 없이 목적지로 직진하리라 믿는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2014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

“삶의 지혜가 여기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시간: 매주 수요일 밤 7:30

장소: 엘루체웨딩컨벤션(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방향)

대상: 젊은이라면 누구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막16:15~20)



분명히 알라, 복 받는 목적을!

공부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지요, 다리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한 길이지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지금 한창이지요. 거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위선양이요, 개인적으로는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명예는 물론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때문에 힘든 훈련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의식, 곧 누구를 위한 일이고, 무엇을 위한 일인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야 하고, 주의 종이라는 목적은 양 떼를 잘 살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상실되거나 심지어 목적 자체가 없을 때, 그것을 악용하여 불의를 행하거나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복 있는 자들이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복 받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애들 유학 보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하며, 목적의식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나 채우기에 급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즉 우리 주

이 벌어서 주를 위해 많이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웨슬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중에 웨슬러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는데, 그가 나중에 부자가 되어 웨슬러의 선교사역을 크게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살리라" (마28:18-20).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16:15)입니다. 또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며, 주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또한 전도, 곧 영혼 구원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 것입니다.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있으리라" (마28:18-20).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16:15)입니다. 또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며, 주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또한 전도, 곧 영혼 구원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 것입니다.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사실 돈이 듭니다. 주일에 전도해서 데려오면 점심이라도 사줘야 하고, 차비라도 대줘야 합니다. 지도 해외집회를 나가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가난한 곳에는 구제하면서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은 안 짓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사실이 선교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다보면, 우리 교회도 짓는 축복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돈도 쓸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법이니까요.

쿠바 북쪽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굶주리고 있는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 토요일 점심때가 되면 스파게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 한 두 명이 스파게티를 먹으려고 토요일에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다 점차 많은 아이들이 토요일을 기다리다 교회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점심 때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은 뒤 찬송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마다 600명의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스파게티를 먹으러 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



은 스파게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입니다.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한비야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케냐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그런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유명한 의사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의사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하는 내 일이 내 가슴을 뽐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며 전도하는 일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한 복음을 전하

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병을 고치고 귀신만 쫓으려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심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가서 훈장을 받았는데,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생각이 깊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훈장도 이렇게 기분이 좋는데,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면류관을 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7-8).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건강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복음은 계속 서진(西進)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듯,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기에 시작되었고, 계속 누군가 전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식, 물질,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과 열정, 은사를 연장삼아 전도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뵈뵈처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게 주신 축복으로 주님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욱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할렐루야!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삶에 응용하는 수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사람과 어두움의 사람은 목적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 다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요, 건강하고 성공해야 하지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신 것'(고후 8:9)이니 잘 살아야지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체적으로 맞으셨으니 당연히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 곧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요, 연장이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러가 사임가들을 모아놓고 "돈 많이 버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다들 큰소리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다시 웨슬러는 "그리고 돈 많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12: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한때는 죽음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만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아십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은 그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 하리라”(창13:9).

그는 자신의 유익부터 구하지 않았습니 다. 조카 롯에게 풍요로운 소품과 고모라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원 망 불평 없이 황량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 절정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 말씀에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바치라면 바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 가장 우선 원칙은 하나님이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곧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말입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살인자였던 모세는 원망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 을 끌어버리겠다는 하나님 앞에 적극 중재자로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냈습 니다. 자신도 동족들로 인해 끝이 아팠을 터인데 모세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셉 또한 눈치 없이 제 꿈이나 자랑하던 철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굴곡을 지나며 요셉은 공의로운 자로 변해갔습 니다. 오랜 인내로 애굽의 2인자가 되었 지만, 그는 그 권력을 오로지 공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원수 같았던 형제들과 재 화한 후에도 그는 자신보다 가족의 유익 을 먼저 구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나요? 그는 돌맹이 하나 잘 던져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 데, 그 사건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꿈 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미친 짓을 하며 살 아남기에 급급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 사울을 응징할 기회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에게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베풀 자를 끝까지 잊지 않고 돌 보아 주었습니다.

목사님을 수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웁 니다. 집회로 인해 파김치가 되어있는 상 황에서도 오로지 성도들을 위해 밤을 새 워가며 성도의 영혼을 살리려 애쓰는 모 습을 봅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권력과 재 력과 지력, 영력 있는 자들이 돕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범사에 형통 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처럼, 먼저 하나님 이 우선인 삶,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수업에서 단체로 학교 갤러리를 찾 아갔습니다. 갤러리에서는 60~70년대 에 활동했던 사진작가 Bob Mizer의 사 진을 전시하고 있는데, 자세히 공부하 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서 찬찬히 전시된 것들을 둘러봤습니다. 남성들의 사진 들이 가득했습니다. 현대예술의 대부 분이 그렇듯 이 전시회도 설명을 듣거 나 보아야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교수는 세 사람의 석사과정 학생에게 전시에 대 하여 설명하도록 준비시켰던 것 같습 니다. 세 사람의 남성이 작품해설을 준 비했고, 그에 대한 토론 진행은 우리 과 졸업생이면서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 남성이 맡았습니다. 설명이 진 행되면서 이 전시가 말하는 것이 무엇 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작가는 포르노그래피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 으며, 그의 주된 관심사는 동성애자 남 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작품 설명을 해주던 세 남성과 피드백을 하는 남성 까지 네 사람의 남성 모두 동성애자였 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시각으로 동성 애 작품의 설명과 해석을 듣고 동성애 작품들을 감상하는 동성애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 다. 이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준비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습니 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 곁에는 험뎨는 채 행복한 얼굴로 서로를 만지고 있는 남성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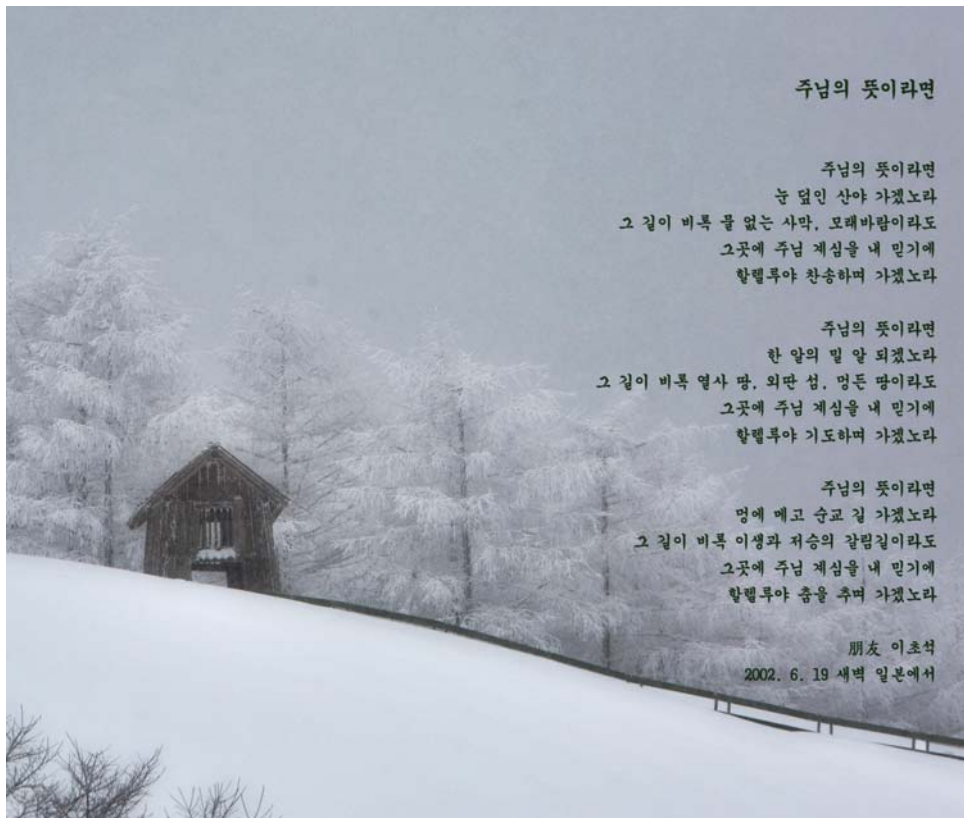
역장이 무너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 가서 모인 이들과 특히 연설을 했던 친 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 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나와서 갤러리 부터 도서관까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 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 면서 축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느 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동성애가 충 만합니다. TV는 벗고 나오는 여가수들 로 충만합니다. 기업들은 돈에 대한 탐 욕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 러가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역할은 무 엇일까요? 세상은 더럽다며 영향 받지 않기 위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나 그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종 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 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이 요동치 면 요동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부의 목적을 두 어야 합니다. 성공의 목적을 두어야 합 니다. 기독교인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지상명령을 늘 가슴에 되새기고 실천 하기를 바랍니다.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눈 덮인 산야 가겠노라
그 길이 비록 물 없는 사막, 모래바람이라도
그곳에 주님 제심을 내 믿기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겠노라

주님의 뜻이라면
한 알의 밀 알 되겠노라
그 길이 비록 열사 땅, 외판 섬, 맹돈 땅이라도
그곳에 주님 제심을 내 믿기에
할렐루야 기도하며 가겠노라

주님의 뜻이라면
명예 애고 수교 길 가겠노라
그 길이 비록 인생과 저승의 감람길이라도
그곳에 주님 제심을 내 믿기에
할렐루야 춤을 추며 가겠노라

朋友 이초석

2002. 6. 19 새벽 일본에서



귀를 기울이세요

청각장애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한 유명 작곡가가 18년 동안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발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대리 작곡 사실이 폭로되기 하루 전날,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였고, 곡을 만들어서 넘겨준 자 또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체를 밝히면서 이제는 그가 어릴 적부터 청각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마저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대리 작곡으로 발표한 '교향곡 제1번 히로시마'는 전 세계 청성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의 기념 콘서트에서 초연된 후, 2년간 20만장 가까운 높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그는 히로시마 시로부터 시민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를 '현대의 베토벤'으로 소개하기까지 했으며, 일본의 메이저급 신문방송사들은 적극적으로 그를 부각시키고 홍보해 온 터였기에 일본 열도와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는 졸지에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음악가에서 세상을 속인 회대의 사기꾼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히4:13). 그러므로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먼저 그 기초에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b@naver.com

::내가 매일 기쁘게::

복 중의 복, 건강

이번 설 명절에는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실천에 옮겼다. 지난 십 수 년간을 미뤄 오던 일이었다. 그것은 엄마의 하지정맥 수술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울퉁불퉁하게 혈관이 튀어나와 보기도 흉하고 혈액순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리로 살아온 엄마에게 수술을 강권하였고, 연휴 전날 수술을 하게 되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수술 경과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되어서 밤사이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발이 시리는 일도 더 이상은 생기지 않는다. 수술 이후에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

지난 10년을 미뤄온 일을 갑작스럽게 결정한 이유는, 복 받는 2014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나와 우리 가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기도하던 중, '엄마의 건강이 집안에 평안과 화목함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엄마에게 조심스레 수술을 권했고, 10년을

넘게 망설이던 엄마도 섣불리 수술에 응해 주셨다.

엄마의 다리 수술과 복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인 것일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야 만다. 때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꾸준한 관리와 운동을 하고,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경고 무시했다면 엄마의 건강에도 큰 타격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술을 해서 보기도 예쁘고, 혈액순환도 아주 잘되고 있다.

복을 받기 위해 오랜 고심 끝에 결정한 우리 가정처럼,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힘써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건강하지 않다면, 맛있는 음식도 보기 좋은 경관도 모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기쁨

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 땅의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한 예로, 총회장 목사님의 해외집회를 위해 많은 교인들이 매일 기도한다. 우리는 집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가는 여정 속에서 목사님과 동행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한다. 목사님과 일행의 강건함이 해외집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무사귀환이라는 복을 받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목사님의 무탈함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꼭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우리나라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관심과 간절한 바람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목마름'이란 우리 인간들에게 성장의 자극제가 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쾌락에 목말라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면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것만 같은 착각 속에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호화로운 생활과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보지만 그 만족함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소망'이며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반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5:6)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뜻합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나 철학적인 지식, 선행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생각

하는 하나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요 14:6). 예수 외에 다른 길은 모두가 굽은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천지 만물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법이며, 우리 인간들에게는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견과류 먹어 볼까?

타이거가 선정한 10대 슈퍼 푸드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견과류. 단백질, 불포화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등이 풍부한 견과류는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로 가득하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견과류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견과류는 피부 모공을 좁혀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 윤기 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둘째, 뇌세포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셋째,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낸다. 넷째 적당한 견과류 섭취는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장의 부정맥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다섯째, 저당류 식품이라 당뇨병환자에게도 좋은 간식이 된다. 여섯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 다양한 효능을 지닌 견과류이지만 그

종류에 따라 효능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땅콩은 변비 환자에게 좋다. 몸에 열이 많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생땅콩도 좋다. 복은 땅콩보다 옛날처럼 껍질째 삶아 껍질을 까면서 먹는 방법이 더 좋다. 하루 20~30알 정도가 좋다. 호두는 사람의 뇌 모양을 닮아서인지 두뇌에 특히 좋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피부가 거칠거나 가래 기침을 자주하거나 호흡기가 나쁜 사람에게 좋다.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낮추고 간과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도 있다. 하루에 8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잣은 우리나라 가정의 특산물로 매우 높은 나무에서 열린다. 열매는 작지만 꽤 비싼 값을 받는다. 잣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몬드느 씹히는 맛이 고소하여 요리나 소스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바타민은 물론 칼륨, 칼슘, 인 등이 풍부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

를 지연시키고, 황균, 항암 작용이 뛰어나며,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활동을 원활히 해준다. 하루 20알 정도가 적당하다. 밤은 견과류이긴 하지만 전분이 많아 기름기가 적다. 위가 쓰러지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이 먹으면 위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좋다. 피스타치오는 불포화지방과 칼륨이 함유되어 있고 다량의 식이섬유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라 체중조절에 효과적이고, 당뇨병 환자의 간식으로 좋다. 매일의 견과류 섭취가 조기 사망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미국에서의 연구도 있다. 이러한 견과류는 특성상 습기와 직사광선과 열에 쉽게 상하므로 신선한 견과류를 소량씩 자주 구입해 냉장보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이 좋다. 견과류 먹는 습관으로 젊음도 유지하고 몸속도 튼튼히 해보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Q&A

Q: 불신자 남편과 별거하며 두 자녀를 믿을 안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며 초상을 치르는데, 어린 자녀들도 와서 제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만 그동안 매달 송금해주던 양육비를 끊어버렸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A: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당장에 생활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했을 고난 속에서도 이런 시련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시60:12).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가되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논쟁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양육비를 부탁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다툼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도 구원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른이로부터 친구로 불리는 것은
제일 큰 천사이며
제일 큰 천사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
친구라 부르거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5장 14-15절)